

국별 리포트

# 볼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4.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9
V. 종합 의견 .....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1,099천km <sup>2</sup>	GDP	194 억 달러(2010년)
인구	10.00 백만명(2010년)	1인당 GDP	1,944 달러(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공화제)	통화단위	Boliviano(Bs)
대외정책	반미주의	환율(달러당)	7.02(2010년 말)

- 남미 내륙 고지대에 위치한 볼리비아는 석유, 천연가스, 금, 은, 주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나, 절대빈곤, 빈부 격차 등 사회문제가 만연해 있는 남미 최빈국이며, 세계 제3위의 코카생산국임.
-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인디오 원주민이지만 도시의 스페인계 부유층이 거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어 인종·지역간 사회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임.
- 국내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초보적 산업발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경제 펀더멘탈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원국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자유치가 급감하였으며 정부의 인프라투자도 담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sup>e</sup>	2011 <sup>f</sup>
경제성장률	4.6	6.1	3.4	4.0	3.8
재정수지/GDP	1.7	3.2	0.1	1.5	-1.5
소비자물가상승률	11.7	11.8	0.3	7.2	9.5

자료: IMF, EIU

#### □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양호한 경제성장률 기록

- 볼리비아 경제는 2006년 천연가스산업 국유화 조치에 따른 투자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천연가스, 광물) 수출 호조, 미국으로부터 특혜관세제도 유지, 해외근로자 모국 송금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2006~08년까지 4~6%대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하였다.
- 2009년에는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 심화로 안데안무역특혜법(ATPDEA) 혜택이 중단된데 이어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1차 상품 시세 하락 및 해외근로자 송금 급감으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2010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높은 경제성장,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4%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 우려 증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6년까지 연평균 4~5%대를 기록하며 안정세가 지속되었으나, 2007~08년에는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 농업지대의 대규모 홍수로 인한 작황 부진, 해외근로자 송금유입 확대 등으로 인해 11%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인플레이 우려가 높아졌음.

- 그러나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요 수입품 가격 하락, 해외노동자의 본국 송금액 축소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3년 이후 최저치인 1%대 이하로 낮아짐.
-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었으며, 에너지 보조금 삭감조치에 따라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7.2%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 재정수지 흑자 기조 유지

- 2006년 5월 천연가스과 석유산업 국유화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관련 정부 재정수입이 급증하여 재정수지도 대규모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이후에도 공무원 임금 상승, 사회보장 인프라 사업 증가 등의 재정지출 부담에도 불구하고 광물 수출 급증으로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유입되면서 재정수지는 2007년 GDP의 1.7%, 2008년 GDP의 3.2%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음.
- 2009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축소 및 광물 가격 하락 등으로 재정수지 흑자폭은 GDP대비 0.1%로 급감하였음. 2010년에 재정수지는 당초 에너지부문 투자증가와 공무원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적자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GDP대비 2.0%의 흑자를 기록함. 이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지연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예상보다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경제에서 농업·광업의 비중이 크나, 기후조건,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

- 볼리비아는 농업이 GDP의 12%, 노동인구의 3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양호한 기상조건과 다양한 토질로 생산 잠재력이 풍부함. 그러나 투자 및 기계화가 부족하고 기간시설이 취약하여 저개발 상태에 있으며, 농산물의 국제가격 변동과 기후 변화에 취약함.
- 천연가스와 원유는 볼리비아의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요인으로, FDI 총유입액의 1/2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업은 GDP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재정수입의 50% 이상을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시세 변동이 경제 전반과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나. 성장 잠재력

#### □ 남미 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가

- 볼리비아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남미 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가로서 천연가스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2010년 천연가스 수출액은 28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8%을 차지하였음.
- 볼리비아는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자본, 기술, 전문 인력 등을 외국기업에 의존해 왔으나, 2006년 5월 천연가스산업 국유화 조치를 단행 한 후 외국인 투자기업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신규 투자도 축소되어 향후 천연가스산업 발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

다. 정책성과

□ 정부의 반시장적인 개입으로 구조개혁 정책 후퇴

-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자원국유화정책 등 정부의 반시장적인 개입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이 수정되었으며,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정책은 후퇴하고 있음.
- 볼리비아는 세계 코카 생산의 30~40%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코카 생산국으로, 코카재배농민협회 회장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개헌 제 384조를 통해 2009년 코카재배를 합법화하였음.
- 정부는 2006년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한데 이어 주요 광산은 물론 전화와 철도 등 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국유화를 개헌을 통해 합헌화하여 관련 외국인 투자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3. 대외경제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sup>e</sup>	2011 <sup>f</sup>
경 상 수 지	1,591	1,993	813	855	920
경 상 수 지 / GDP	12.1	12.0	4.5	4.4	4.1
상 품 수 지	1,215	1,762	774	1,298	1,599
수 출	4,458	6,527	4,918	6,276	7,548
수 입	3,243	4,764	4,144	4,978	5,949
외 환 보 유 액	4,498	6,871	7,311	9,730	10,270
총 외 채 잔 액	4,983	5,528	5,859	6,055	6,975
총 외 채 잔 액 / GDP	37.5	33.3	33.2	31.7	30.7
D. S. R.	12.0	7.2	8.5	8.4	..

자료: IFS, EIU

## □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 볼리비아는 열악한 국내 산업으로 인해 생필품, 자본재, 원부자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상품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 왔으나,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볼리비아-브라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완공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3년 이후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됨.
- 2009년은 1/4분기까지 이어진 광물가격 하락과 안데안무역특혜법(ATPDEA) 관세혜택 배제조치에 따른 대미 수출액 감소,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원자재 수요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50% 이상 축소되었음.
-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해외근로자의 송금감소, 외국인기업들의 과실송금 증가 등으로 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가 크게 감소하여 GDP대비 경상수지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에 머무름.

## □ 외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

- 고채무빈국(HIPC) 수혜에 이어 다자간외채감축구상(MDRI)에 따라 2006년에 IMF, 세계은행 등 다자기구의 채무 18억 달러를 탕감 받게 되어 외채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
- 2010년 말 현재 GDP대비 총외채 비율은 31.7%, D.S.R.은 8.4%로 최근 수년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도 2002년 69%대에서 2010년 8%대로 크게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외채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으로 2010년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97억 달러를 기록하며 양호한 외채상환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 좌파 성향의 에보 모랄레스 정부 출범

- 1825년 독립 이래 156년간 193회의 군부반란 및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정국불안이 지속되어 왔음. 1985년 이후 군부의 정치개입이 중단되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천연가스산업 국유화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정책에 반대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대통령이 연이어 사임하는 등 정국불안이 지속되어 왔음.
- 2005년 12월 18일 실시된 대선에서 천연가스산업 국유화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사회주의운동당(MAS)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후보가 54%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어 원주민 출신 최초로 대통령에 취임함 (2006년 1월).
- 2009년 실시된 대선에서도 64%의 득표율을 기록, 당선되어 원주민 대통령 최초로 집권 2기를 맞이하며, 동시에 실시된 총선에서도 여당인 사회주의 운동당이 상·하 양원에서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해 향후 5년간의 임기동안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됨.

#### 2. 사회동향

##### □ 인종 · 지역간 사회 불평등 심각

-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인디오 원주민이지만 도시의 스페인계 부유층이 거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어 인종 · 지역간 사회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며, 치안불안, 마약문제 등의 사회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사회 형평성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모랄레스 대통령의 자원 국유화 및 부의 재분배 정책 방향에 대한 야당과 부유층의 반발로 정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8년 9월에는 야권과 친정부 세력간의 충돌로 반정부 세력이 공공기관을 점거하는 등 내전을 방불케하는 유혈 사태가 발생, 19명이 사망하는 등 정국 혼란이 지속됨.

□ 에너지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민심이반

- 2010년 12월 에너지자원 밀수거래 방지와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모랄레스 정권이 에너지보조금 삭감 정책을 공포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와 점거농성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모랄레스 정권은 위기에 봉착함.
-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휘발유 가격은 한때 73% 급등하였으며 디젤 가격 또한 83% 폭등하였음. 연료가격의 상승은 연쇄적으로 교통운임과 식료품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모랄레스 정권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음.
-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고자 관련 부처 장관들을 교체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모랄레스 정권의 지지율 급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3. 국제관계

□ 인근 국가와의 관계는 비교적 우호적

- 볼리비아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준회원국이자, 안데안공동시장(CAN)의 회원국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중남미 국가와 활발한 교역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과는 좌파 남미 동맹의 축을 형성하며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태평양 전쟁(1879년~1883년)에서 칠레에 패해 해안 접근권을 상실한 후 대 칠레 국민감정은 부정적인 편으로 연안 영토와 관련해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모랄레스 정권이 들어선 후 두 나라 관계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미 외교노선 추구

-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단속 노력에 적극 협조하며 미국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외교정책의 최우선을 두어 왔으나, 모랄레스 정부 출범 이후 베네수엘라-쿠바-에콰도르-볼리비아로 이어지는 남미의 반미좌파동맹에 적극 가담하고 있음.
- \* 2008년 9월에 모랄레스 대통령은 골드버그 미국 대사에 대해 야당 보수파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외 퇴거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미국과의 관계악화로 2009년 이후 안데안무역특혜법(ATPDEA)의 면세 혜택이 중단되었음.
- \* 2009년 11월에는 이란 대통령의 볼리비아 방문시 이란과의 경제협력 협약, 볼리비아 광산 개발 MOU 체결 등 이란과의 협력 강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기관명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D2	D1
OECD	7등급	6등급
S&P	B-(stable)	B(positive)
Moody's	B2(stable)	B1(positive)
Fitch	B(stable)	B+(stable)

□ 긍정적 경제 평가로 신용등급 상향조정

- OECD를 비롯해 S&P, Moody's, Fitch 등 주요 평가기관들은 양호한 경제성장 지속, 국내투자 활성화, 외채 및 재정상황 개선 등을 이유로 볼리비아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조정하였으며, 특히 S&P와 Moody's는

향후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하였음.

## 2. 외채 상환 태도

### □ HIPC 수혜국으로 외채부담 경감

- 1980년대 이후 공적채무 7회, 상업채무 5회의 채무재조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등 수차례의 외채위기를 경험한 HIPC 국가임.
- IMF 등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신규차입 및 기존채무의 리스케줄링과 1998년에 HIPC 외채경감계획에 따라 7억 6,000만 달러의 공공채무탕감을 받았으며 다자기구외채탕감구상(MDRI)에 따라 세계은행으로부터 외채 약 18억 달러, 2007년 미주개발은행(IDB)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채무를 탕감 받음.

### □ 모랄레스 정부와 채권단의 긴장관계 형성

- 볼리비아는 과거 국제금융기관 및 파리클럽과의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양호한 평가를 받아 왔고 외채상환태도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아 왔음.
- 그러나 모랄레스 정부 출범 이후 천연가스산업 국유화 등 사회주의 성향의 경제정책을 도입하면서 국제기구와 일부 채무국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3. 주요 ECA 인수 태도

- 미국 EXIM: 인수 불가
- 영국 ECGD: 단기 인수, 중기 제한적 인수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5/04/25 (북한과의 수교 : 미수교)

□ 주요협정: 문화협정(1971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86년), 투자보장협정(1996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5> **한·아르헨티나 교역 규모**

단위 :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15,112	13,127	19,783	아연, 금, 천연가스, 리튬
수 입	202,540	66,185	213,861	석유제품, 제지, 자동차, 항공수송기
합 계	217,652	79,312	233,644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현황(2010년 12월 누계, 총투자 기준) : 13건, 74,903천달러

□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지속**

- 현재 對 볼리비아 무역에 있어서 한국은 매년 적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광물자원의 수입 확대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출실적에 기인함. 201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對 볼리비아 교역규모는 234백만 달러(수출 20백만 달러, 수입 214백만 달러) 수준이며,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무선통신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아연, 주석, 납 등 광물 자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2010년 12월 말 기준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신규법인수 13건에 투자금액 7,490만 달러에 달하며, 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과 같은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 V. 종합 의견

- 볼리비아 경제는 천연가스 산업 국유화 이후 재정수입이 증대되고 주요 수출품목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호조가 지속되어 2008년까지 4~6%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및 원자재 가격의 회복세 전환 등으로 2009-10년에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반정부세력과의 충돌 등으로 정국 불안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인종간 빈부격차, 치안불안, 마약문제 등의 사회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또한 최근 모랄레스 정권이 에너지 밀수거래 방지와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에너지보조금 삭감을 선언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와 점거농성 사태가 벌어지는 등 민심이반이 가중되는 등 정치·사회적 안정성은 취약한 상태임.
- 그러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GDP 대비 외채잔액, D.S.R, 외환보유액 등 외채관련지표들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점을 근거로 2010년 OECD 국가신용등급이 10년만에 최하등급인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으며, 동국에 대한 국제신용기관들의 평가등급 또한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당행의 평가등급을 종전 D2에서 D1로 한 단계 상승시키고자 함.

문의 : 조사역 최철영(☎3779-5720)

E-mail : cychoi@koreaexim.go.kr